

buddhanews.com

여름산사서 삶의 심표 찍자

수행·명상·정진 템플스테이 사찰로 출발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지며 여름의 한가운데로 향하는 요즘, 여름휴가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계획이 한창이다. 쾌청한 산으로, 시원한 바다로, 또는 미지 세계로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마음자리가 허전하다면 산사로 발걸음을 돌려보자. 산사의 일상을 체험하며 내면의 나를 들여다보며 지친 삶에 심표를 찍어보자.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 051-508-5726)는 8월 5~7일 청소년 여름템플스테이, 8월 13~16일 3박 4일간 2차 수행정진 템플스테이, 7월 11~12일 7차 정기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금정산 산자락에 고즈넉이 앉은 암자를 순례하고 등나무 숲길을 걷는 특별함이 있다.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 055-281-2002)는 7월 24~26일, 7월 27~29일 등 총 2회에 걸쳐 제24회 보리수학교를 개최한다. 참가대상

은 초등학교생으로 각 학년별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하동 쌍계사(조실 상훈, 055-883-1901)는 '본 마음 참 나'를 내세운 여름수련법회를 실시한다. 7월 19~22일 일반인, 7월 24~26일 유치부 및 초등학생, 7월 28~31일 일반인, 8월 2~5일 일반인, 8월 7~10일 일반인 등 총 5차에 걸쳐 진행되며, 통광 스님과 상훈 스님, 월호 스님, 무공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서 특별한 법석이 마련된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055-384-7085)는 '감사하는 삶, 행복한 만남'을 주제로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여름 수련회를 운영한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에서 경합하는 기도도와 정진, 삼보일배, 숲길 명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 055-934-3110)는 '머무는 곳마다 주인

이 되라'를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7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4박5일간 총 3회에 걸쳐 일반인 수련회가 진행되며, 8월 7~9일 중등부 수련회도 마련된다.

함양 벽송사(선원장 월암, 055-962-5661)는 자유수행형 산사체험 템플스테이를 매주 토요일부터 1박 2일간 운영한다.

(사)동림(이사장 지현, 051-864-4569)은 흥법사(주지 삼산)에서 어린이를 위한 연합캠프를 7월 28~30일, 8월 14~16일 두 차례 개최한다. 2차 단계접수 시에는 2009년 여름 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 교사 1인 이상 참석한 사찰에 한한다.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 051-746-2256)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45분까지 참야참선정진을 하고 새벽예불에 참가하는 참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지원 기자

안정사 영산재 '은상'

제35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서



안정사 영산재보존회가 제35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영산재 시연을 하고 있다(위). 은상을 받는 승헌 스님(아래).



통영 안정사 영산재가 제35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공연에서 은상의 영예를 안았다. 6월 23~24일 경상남도·거제시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는 20여 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안정사는 2008년 10월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를 설립했다. 이사장 승헌 스님은 안정사 영산재 범음법패를 계승·발전하는데 큰 힘을 쏟고 있다.

안정사영산재보존회 설립은 영산회상도 안정사 괘불(시도 유형문화재 제228호)과 함께 그 전통과 의식의 원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최은경 부산부지사장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고 싶어요”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부산 영광전통예절미학회 이경순 원장

2008년 범어사 개산대제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다례시연이 펼쳐졌다. 현공다례와 접빈다례를 결합한 이 새로운 다법은, 그 해 겨울 부산 팔관회에서 또 한번 무대에 올려져 다도시연은 지루하고 식상하다는 고정관념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또 다례의 끝에 보자기에 담아 정리하는 것은 한층 더 기품 있고 예의바른 세 형태의 마무리였다. 전에 없던 새로운 다법을 만든 부산차문화진흥원 이경순 원장(사진)이, 이번에는 '유학자가 해석하는 육우의 <다경>'으로 변화와 상상의 새바람을 일으킬 채비를 마쳤다.



소에서 실천예절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연한 기회로 그곳에서 여든을 훌쩍 넘긴 단아한 할머니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현재 영광전통예절미학회에서 유아예절 지도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예절 교육을 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교육과정에서는 공수와 촌수, 존댓말과 같은 생활예절부터 부채그림그리기나 한복그리기 등의 세시풍속, 접빈다례 등을 배우게 된다.

이 원장은 "유교와 불교를 따질 것 없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해온 것이 바로 예절인데, 서양의 에티켓이나 매너는 쉽고 빠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절에서 '가족실천예절'을 가르쳐야 한다. 불교의 팔정도에 귀의한 정신적인 부분과 실천예절이라는 외적인 부분이 합쳐질 때 성숙한 불자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순 원장의 꿈은 사찰에서 기초교리반과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듯 실천예절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예절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민족이 행해오던 것이기에 응당 우리문화 전반에 뿌리 깊은 불교가 감사안아야 한다는 것. 그렇지 못해 점점 사람다움을 잃고, 단순히 지식만 가르쳐 이기적인 어른을 만드는 교육체제가 안타깝다고 한다.

"실천예절은 곧 자기 자신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경순 원장은 벌써 7개월째 매주 토, 일요일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며 한국전래연구

이 원장은 "유교와 불교를 따질 것 없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해온 것이 바로 예절인데, 서양의 에티켓이나 매너는 쉽고 빠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절에서 '가족실천예절'을 가르쳐야 한다. 불교의 팔정도에 귀의한 정신적인 부분과 실천예절이라는 외적인 부분이 합쳐질 때 성숙한 불자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알려면 밥상부터 사로잡아야

용호복지관, 결혼이민여성 위한 '한국밥상완전정복기'

장마가 시작된 후덥지근한 초여름의 오후,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 지하 조리실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한다. 오늘의 메뉴는 시원한 북어국과 북어고추장구이. 한국으로 시집을 온 외국인 초보주부들이 생선 처음 본 북어와의 고군분투가 시작됐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밥상 완전정복에 나선 외국인 어머니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6월 2일부터 총 15회 과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요리를 통한 한국 적응력 향상 프로젝트 '한국밥상 완전정복기'를 마련했다. 올해로 27기를 맞은 요리교실은 남구여성단체협의회와 지원 덕분에 참가자들은 수강료와 재료비의 부담 없이 총 15회의 강좌 모두 무료로 수강하고 있다.

고국 베트남에서 일급요리사였

던 막티헨(29·베트남)은 작년 1기에 이어 올해도 참가했다. 요리 못지않게 한국어 실력 또한 수준급이라 언어소통이 편리한 수업 때마다 동기들의 통역을 도맡았다. "베트남에서는 마늘을 쓰면 파는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마늘과 파를 무척 좋아하고 즐겨 넣는 점이 신기했어요."

이렇듯 우리 요리에 쓰이는 마늘, 고추, 파, 국간장, 참기름 등 식재료 이름부터 영양소, 사용방법,

각 요리에 알맞은 냄비와 담는 그릇의 쓰임새 등 한국밥상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입맛과 식문화, 낯선 이국에서 한국인과 가족이 돼 살아가는 방법을 음식을 통해 알려준다.

수업을 진행하는 김영희 강사는 요리경력

16년의 베테랑이지만 이번 만큼은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려 노력한다. "우리말로 서툰데, 파 마늘이 뭔지 냄비는 어디에 쓰는지,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간이 잡힐 건지 기초부터 가르치고 싶어서, 시간은 2~3배 더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지도한다"고 말했다.

결혼 이민여성들은 요리를 통해 한국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051)628-6737 박지원 기자

부산 4년제 대학교에 불교학과 신설

동명대 2010년 불교문화학과 신설 추진

부산경남지역 4년제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불교문화학과가 신설된다.

동명대학교(총장 이무근)는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사회과학대학 내 40명 정원의 불교문화학과 신설 초읽기에 들어갔다.

응시 자격은 스님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커리큘럼은 불교 경전과 예술, 사회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또한 불교의 특성상 책임 교수의 지도하에 종단과 협의해 사찰 등에서의 현장 중심 교육을 펼치게 된다. 졸업 후 진로는 불교학계를 포함한 각급 불교 교육기관, 각 종단 및 불교단체의 종무행정, 각 군의 군종장교, 종립종교교사, 포교업무 및 사회사업, 불교언론계, 불교관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성에 맞게 일할 수 있다.

이무근 총장은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교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고, 또 대학의 지역사회적 역할 차원에서 불교와 관련된 학과를 개설해 문화 및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교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동국대학교 서울·경주 캠퍼스, 위덕대학교, 금강대학교 등 총 4곳으로 동명대학교는 국내 5번째 불교학과 개설대학이 된다.

이번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신설은 불교 전문 인재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어 부산지역 불교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지원 기자

유기농 보이차(ORGANIC PUER TEA)
유기농 보이차의 보급화 선언!
 현불샵(hyunbulshop.com) 입점 기념 15%할인 판매
 250,000원 ⇨ 15% DC 특별 할인가 212,500원

이중 특별한선물 유기농 보이차선물세트 (유기농보이차 속차 357g + 대나무보관통 + 보이차 다기세트 7종)

1등급 100% 유기농 보이차만을 엄선하여 준비했으며 보이차 전문 다기세트는 드리는 분의 정성과 선물의 격을 한층 더 높여 드립니다.

- 제 6기 중국보이차 '보이차왕' 수여
- 미국 FDA, 유기농인증 획득한 USDA
- 일본 유기농인증기관인 JAS

중국 보이차 기업 중 최대규모인 670만평 이상의 보이차 생산단지과 100%유기농법으로 생산하여 그 품질과 맛이 가장 뛰어난 (주)고진 유기농 보이차! 후 발효차인 보이차의 깊은 맛과 오묘한 향의 끝맛을 그대로 발효시켜 황제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유기농 보이차입니다.

중국에서도 유기농회사로서 처음으로 생산 공정과 가공공정 발효공정에 특허를 받아 융생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발효시켜서 만든 유기농보이차입니다. 중국황제가 마시던 보이차는 오래 묵을수록 귀한 고가의 차며,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거치는 후 발효 차이며 오래 묵히면 묵할수록 고가의 차가 됩니다. 방습통풍이 잘되는 적절한 온도하에서 보이차는 독특한 맛과 향, 약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기농 보이차는 상류층이 주로 애용하는 고가의 차이며 국가주식 후진타오도 보이차를 즐겨 마시는 보이차 애호가입니다.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가 융생유기농 보이차를 접하고 나서 유난히 맛과 품질이 뛰어난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현재 후진타오 국가주식이 융생 보이차만을 애용하고 있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으며 유명인사 방문 시 융생의 보이차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 유기농 보이차 속차**
- 제품명 : 유기농보이차 속차 · 식품유형 : 침출차 · 내용량 : 357g
 - 제조회사 : Yunnan Longsheng Green Industries (group) LTD
 - 원재료명 : 보이차 100%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수입판매 : (주)고진 · 포장재질 : 종이재
 - 제조일자 : 2007년 03월 01일 (제조일자는 2007년이지만 2006년에 수확한 찻잎을 사용해 제조하였습니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년 (보이차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때문에 적정한 장소에서 보관만 잘 하면 훌륭한 보이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 불교온라인쇼핑몰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문의: (주)고진 031)437-1570, 1580
 *주문전화: 02)2004-8215~6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구내폭발손해 중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소유배상책임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서일석(西日石)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